

‘나의 지도교수님 함께 만나기’활동 보고서

유레카프로젝트01분반(황선태 교수님)

조연지, 이지유, 김영원, 이승원, 정민규

1. 면담 개요

- 면담 일시: 11월 28일 12:30
- 면담 대상: 소프트웨어학부 배홍균 교수님
- 면담 참여자: 김영원, 이승원, 이지유, 정민규, 조연지
- 면담 목적: 유레카프로젝트 과제의 일환으로 전공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교수님을 직접 찾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로봇틱스, 인공지능, 프로젝트 경험, 전공 공부 방향 등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

2. 면담 주요 내용

2.1) 로봇틱스 및 휴머노이드 연구에 대한 조언

로봇틱스, 휴머노이드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학부생일 때 기계공학을 다/부전공 하는 게 좋을 지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교수님께서서는 학부생일 때 기계공학 분야도 공부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해주셨다. 로봇의 뇌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이고, 몸은 기계적 특성이므로 해당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또, 기계공학 관련 내용은 해당 학과의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해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고 추천 해 주셨다.

2.2) 소프트웨어 전공에 대한 이해

iOS개발을 하다 소프트웨어학부로 전과하게 되어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 인공지능 분야밖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수님께서서는 AI는 원래 SW분야의 일부였으나, 연구 활성화로 독립된 영역처럼 커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데이터마이닝’분야로 예시를 들며 현재 해당 분야가 발전하며 딥러닝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며, 어떤 연구 분야에서든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느꼈다.

더불어 AI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다른 분야들도 넓게 탐색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으며, 흥미를 탐색할 것과, 전공을 폭넓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2.3) 진로 고민(취업, 비전) 및 1학년에게 필요한 공부 조언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취업과 실무에 연결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하였고, 교수님께서서는 인턴 경험을 해보며 실무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을 추천해주셨다. 다만, 1~2학년 시기에는 인턴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무 감각을 대체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주제를 선정하는 게 막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를 경험을 쌓거나, 혼자 할 수 있다면 방학동안 스스로 서비스를 완성하는 경험을 해 보라고 말씀해주셨다.

1학년이 겨울방학동안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1학년에 배운 파이썬을 복습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자바를 통해 객체지향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공고히 하는 것을 추천해주셨다. 복습을 통해 2학년에 배울 C++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주셨다. 또, 알고리즘 공부법에 대해서는 ‘백준’사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내 프로젝트를 만들다보면 그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위해 고민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을 쌓고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2.4) 교수님의 개인적인 목표

교수님께서서는 연구/교육/봉사 세 분야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다.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 연구에 소홀해지기 쉽게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셨다.

2.5) 대학원 컨택 및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방법

관심 있는 연구실 사이트에서 논문을 AI로 요약해서 다양한 논문을 빠르게 접해보고, 관심 분야를 찾아가는 방식을 추천해주셨다. 최근에 어떤 기술이 쓰이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 지 파악하면 프로젝트의 주제 선정도 수월해지고,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3. 면담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이번 면담은 앞으로의 학부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1. 우선 해당 학문의 입문자로서 전공의 깊이보다 폭을 넓혀야 함
2. 학부생일 때 양질의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며 전공 실력과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음.

3. 알고리즘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
4. 휴머노이드 기술이 미래 기술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통찰

해당 인사이트를 통해 팀원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